

독거노인 10명중 1명꼴 ‘치매 고위험군’

도 ‘2019년 독거노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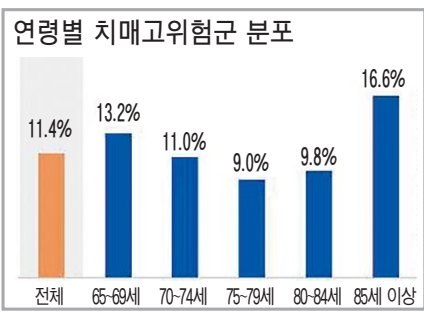
치매 고위험군 11.4%… 남성 16%·여성 11%

고령·낮은 경제수준·우울감 등 치매 위험 높여

제주지역에서 혼자사는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일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서귀포시 지역이 제주 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제주 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제12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도내 거주 독거노인의 치매, 우울 수준, 삶의 질 등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독거노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노인돌봄기 본서비스사업 대상자 4745명(제주 시 3252, 서귀포시 1493)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독거노인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치매 고위험군은 11.4%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 15.6%, 여성 10.9%로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85세 이상의 비중이 16.6%였으며, 지역별로는 서귀포시가 13.3%로 제주 시(10.6%)보다 높았다.



치매 고위험군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연령, 학력, 경제수준, 노인우울, 정신행동증상인데 ▶고령 ▶낮은 학력 ▶낮은 경제수준 ▶높은 우울감 ▶정신행동 증상을 가지고 있을수록 치매 위험 증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독거노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 경제, 노인 우울인 것

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협약, 생활관리사가 교육이수 후 가정 방문을 통해 이뤄졌다. 제주시는 올 5월에,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조사됐다.

조사내용은 치매선별검사(MMSE-DS), 노인우울척도(SGDS-K), 정신행동증상, 삶의질척도(QOL-AD) 등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치매 고위험군 독거노인들이 주소지 인근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결과는 앞으로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치매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학생문화원 옆 수운공원 일원 '청소년의 거리'에 설치된 화분이 행정기관의 관리부실로 메말라 죽어있고 주변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 김현석기자

학생들 없는 ‘제주 청소년의 거리’

1991년 학생문화원 옆 수운공원 일원에 조성 환경개선 미흡 발길 ‘뚝’

제주 청소년의 거리가 지정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시설 유지 보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제주학생문화원 인근에 조성된 제주 청소년의 거리에는 제조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여러 잡풀들이 많이 자라나 있었다. 또 경관을 위해 설치된 넝쿨·소나무 화분 일부는 시들거나 이미 죽어있어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특히 거리에는 인근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을 뿐, 청소년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제주시와 제주학생문화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과 수운근린공원 일대를 제주 청소년의 거리로 지정했다.

이후 제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거리 활성화를 위해 벽화와 조명을 설치하는 등 시설환경 재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도 예산 1

억5000만원을 책정하고 이 일대에 나무 화분, 도자기 조형 등을 설치했지만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아 지역내 자생단체에게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주민 김모(49)씨는 “운동 삼아 이 일대를 자주 걷곤 하는데 청소년의 거리라고 부르기에는 청소년들을 찾아 보기도 힘들고 시설물 관리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몇 달 전 설치된 화분들도 일부는 이미 죽어있고, 이 일대 제조 작업 등 정비도 꾸준히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거리 활성화를 위해 제주학생문화원과 논의하고 다양한 시설물 설치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문제 등으로 꾸준히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자생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10월 중으로는 환경 정비 사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학생문화원 등 다양한 기관과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예산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대 ‘산업단지 캠퍼스’ 내년 9월 과기단지내 개교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연)는 내년 9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산학융합지구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개교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단지 캠퍼스의 명칭은 ‘제주대학교 첨단 캠퍼스’이며 제주도 지역전략산업과 밀접한 화학·코스메틱학과, 식품영양학과, 컴퓨터공학과가 이전해 3·4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대는 첨단 캠퍼스에서 지역전략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산학연계형 융합교육과정 운영과 현장실습을 강화해 전문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 재직자 교육을 위한 특화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역산업체와의 매칭을 강화할 방침이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직장소방대 소방경연대회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개최된 제12회 범도민안전체험관마당 마지막날인 21일 직장내 자위소방대가 소화기, 육내소화전, 심폐소생술 등 3개 분야에서 열띤 경연을 펼치고 있다. 이상국기자

ASF 여파 급등 돼지고기 가격 안정세

경매 재개 출하량 늘며 도매가격 13.9% 하락

농식품부 가격 예의 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급등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이동중지(9월 17~18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나, 19일 이동중지 해제 이후 도매시장의 경매가 재개되고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과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일 kg당 5017원으로, kg당 5828원이던 19일에 비해 13.9% 하락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전국 돼지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17일 kg당 5838원으로 전날(4403원)보다 큰 폭으로 뛰었으며, 18일 6201원까지 상승했다.

삼겹살(냉장) 소비자가격은 20일 g당 2092원으로, 19일(2103원) 대비 0.5% 하락했다.

삼겹살 가격은 16일 2013원에서 17일 2029원, 18일 2044원, 19일

2103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일은 발병 이후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감염이 없어 사람의 건강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돼지고기는 도축장에서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우리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돼지고기의 수급·가격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협·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상윤기자

자동차번호판 가림행위 과태료 부과한다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와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이다.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으로 1

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번호판 가림행위에는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및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으로 번호판 가림,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이 해당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한다. 교통기자

2019년 즐겁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수기 공모

- 학생, 학부모의 학교폭력 경험 극복 사례 또는 동아리 활동 사례 공유를 통한 건강한 청소년 육성상 정립
- 학교폭력예방 우수 사례 또는 학생 인성지도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 제로 문화 확산
-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기여한 시민단체 활동 공유를 통한 사회적 책임의식 확산

공모내용

- 작품분야: 수기
- 공모기간: 2019. 5. 20. (월) ~ 10. 10. (목)
- 결과발표: 2019. 10. 21. (월),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공고란 참조
- 공모대상 1)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2)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또는 교사동아리 3) 도내 시민단체 또는 사회기관
- 공모주제 1)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 학생으로서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 및 이를 극복한 사례 -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학부모로서 자녀의 바른 성장을 이끈 사례 2)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또는 교사동아리 - 교사로서 학생 인성지도를 통해 즐겁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운영 수기 3) 도내 시민단체 또는 사회기관 - 시민단체 또는 사회기관으로서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기여한 사례

○ 시상내용

구분	도지사상	교육감상	제주지방검찰청 심사장상	법무부법사랑위원회 제주지역연합회장상
학생 또는 학부모	대상 학생1명 학부모1명	학생 또는 학부모 중 2명	학생1명 학부모1명	학생 또는 학부모 중 2명
	상금 0	0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X2
교사 또는 교사 동아리	대상 0	교사 또는 교사동아리 중 2명	1명 또는 1동아리	교사 또는 교사동아리 중 2명
	상금 0	0	1,00,000원	1,00,000원X2
시민단체 사회기관	대상 0	0	1단체(기관)	0
	상금 0	0	1,00,000원	0

응모요령

- 작품분량: A4 3~5쪽
- 여백: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표리말: 각각 15
- 글자 모양: 바탕체, 제목 20p, 본문 12p, 자간 0
- 문단모양: 문단 위0, 문단아래 0, 줄 간격 160
- 제출서류: 공모 수기 원고 또는 hwp 파일
- 작품접수: 우편 또는 메일 접수
- 접수처 - 우편: 우)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복 5길 3 제주지방검찰청 503호 법사랑위원회실
- 메일: bumbang4975@naver.com
- 문의 ☎ 064-758-4975, 729-4578

시상식

- 일 시: 2019년 11월 중 수상자 개별통지 예정 (추후 공지)
- 장 소: 추후 결정

※ 수상상은 전국학교 홍보 및 언론매체 보도



○ 주최 및 주관: 법무부법사랑위원회제주지역연합회

○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검찰청